

# 봄이 오고 있어요

어느덧 차가운 언음이 사르르 녹아내리고, 따스한 햇살 아래 봄기운이 하나둘 제 모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봄기운은 남쪽을 따라서 사뿐사뿐 우리 곁을 향해 다가옵니다. 한그루녹색회가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수목원에도 봄을 알리는 꽃망울이 하나둘 고개를 들며 인사를 합니다.



## 봄은 부르는 또 하나의 전령사, 생강나무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지꾸 못살게 굴테니."

"그래그래, 인젠 안 그럴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름테니."

그리고 무엇이 떠들썩했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펌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김유정 소설 <동백꽃>에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노란 동백꽃이 바로 생강나무입니다. 옛날 여자들은 빨간 동백나무의 씨앗으로 기름을 짜서 머리 단장을 했는데, 추운 지방에서는 이 동백나무가 자라지 못하므로 생강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중부지방이나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는 생강나무를 동백나무라고 부릅니다.

생강나무는 상록활엽수로서, 잎과 가지에서 유난히 생강 내음 비슷한 향긋한 냄새가 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른 봄에 노란 꽃이 피는데 꽃이 진 후 나오는 어린 잎을 차로 달여 마시거나 잎을 말렸다가 나물로 먹기도 합니다.

## 황금의 꽃, 복수초

복수초란 행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코스모스와 비슷하게 생긴 노란 꽃잎 때문에 '황금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부유함과 행복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복수초라는 이름은 한자로 복(福)자에 목숨 수(壽)자, 즉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른봄에 노랗게 피어나는 복수초를 보면 누구나 축복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봄의 화신, 풍년화

홍릉수목원에는 서울에서 '봄의 화신' 이라고 알려진 풍년화가 지난 2월 24일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풍년화는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고 하여 영춘화라 부르기도 합니다. 화사하고 소담스러운 꽃이 가지 위에 덩뽕 피거나 이른 봄에 일찍 꽃이 피면 풍년이 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갈수록 풍년화의 개화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이것은 낮은 기온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리 주위의 꽃과 나무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들어 인사하는 봄이 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 나무들과 같이 우리 푸른숲선도원 여러분도 나무와 함께, 숲과 함께, 자연과 함께 꿈과 희망과 미래를 키워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